

외국인의 한국전쟁 수기와 전쟁이라는
물음*

이 희 원**

차 례

1. 전쟁 ‘장치’와 외국인의 한국전쟁 수기	4. 해방과 점령 사이, 민간인의 전장
2. 외국인의 한국전쟁 수기 발간 현황과 의미	5. 수행되지 않는 전쟁 - ‘동시대적’ 증언과 지속되는 ‘미결성’
3. 피아 식별의 붕괴와 전쟁 ‘장치’의 오작동	6. 나가며 - ‘미결성’의 전장과 평화 담론 구상

국문초록

본고는 조르조 아감벤의 ‘장치’와 ‘통치될 수 없는 것’ 개념을 바탕으로 국내에 번역·소개된 외국인의 한국전쟁 수기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국가 중심의 전쟁 서사가 어떻게 반복·균열되는지 고찰했다. 먼저 195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로 외국인 중군기자·참전군인·포로·선교사 등이 남긴 전쟁 수기의 번역 발간 현황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088972).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을 수집하고 그 의미를 당시 상황과 더불어 검토했다. 이에 한국사회의 이념적 변화에 따라 소개 대상과 내용이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용상 외국인 전쟁 수기가 갖는 특징은 군인이 겪는 전장과 민간인이 겪는 전장에 대한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군인의 입장에서 전장에서 지속적으로 피아 식별에 실패하는 경험, 오인사격의 반복, 적군과 아군의 유사성, 병사의 무의미한 죽음 등을 경험하며 전쟁 ‘장치’가 실제 전장에서 오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양상이 보였다. 민간인의 경우 남북한 측의 군인이 표방한 각각의 ‘해방’이 민간인의 입장에서 사실상 점령·죽임·수탈의 동일한 경험인 경우가 많았고, 전쟁 논리로 민간인의 정체성이 모두 규정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서술이 강조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수기의 필자가 속한 각국의 이해(利害)와 입장을 반영하는 관점에서 한국전쟁을 기록했기에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이 작품들에는 한국 내 전쟁 ‘장치’와 관련한 서사와 역사가 말하지 못하는 전장의 공포·연민·모순 등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이 기록들은 한국전쟁을 단일한 이념이나 승패의 서사로 봉합해서는 안되며, 미결의 사건으로서 그 의미를 끊임없이 재구성해야 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국가 중심의 기념을 넘어 은폐된 한국 전쟁의 실상을 양지화하는 전쟁 기념 가능성을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전쟁 수기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외국인 전쟁 수기, 한국전쟁, 장치, 동시대성, 피아 식별, 민간인, 미결성

1. 전쟁 ‘장치’와 외국인의 한국전쟁 수기

조르조 아감벤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생명체’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제도·규칙·기술·담론 등이 교차해 조성하는 권력 위계의 통치 메커니즘인 ‘장치’의 관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한다.¹⁾ ‘정체성’은 바로 이 ‘생명체’와 ‘장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결과다. 즉 담론이 제도를 정당화하고, 제도가 담론을 현실로 만들며, 기술이 담론을 사람들의 삶에 적용해 그것을 내면화한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명체’는 장치가 부여한 이름과 기능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하지만 ‘생명체’는 통치 논리에 복속되지 않는 ‘통치될 수 없는 것’²⁾을 내장하고 있기에 ‘장치’를 무력화하는 저항의 가능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세계와 정체성의 변화를 꾀한다. 상황에 대한 단선적 이해를 넘어, 여러 사회적 자질이 만드는 관계의 효과와 개인 주체의 역능 모두에 집중하는 이러한 관점은 전쟁과 같이 복잡다단한 맥락의 사건을 의미화하는 데에 주효하다.

‘장치’ 측면에서 볼 때 전쟁이 발발하면 사회 체제는 평시의 법적·윤리적 규범을 많은 부분 보류하고, 생명을 담보로 한 폭력의 행사를 공

1) 생명체들의 몸짓·행동·의견·담론을 포획·지도·규정·차단·주조·제어·보장하는 능력을 지닌 사회적 실천이나 제도, 규칙, 기술, 담론 등이 모두 통치 메커니즘으로서 ‘장치’가 된다.(조르조 아감벤, 양창렬 옮김, 『장치란 무엇인가?』, 난장, 2010, 33쪽) 이에 따르면 권력은 특정 인물이나 국가기관이 소유한 명령체계가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인식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담론, 제도, 공간, 지식, 기술이 연결된 일종의 관계망이다.

2) “이 세계통치는 세계를 구원하기는커녕 세계를 파국으로 이끌어간다. (중략) 그러므로 장치들을 세속화하는 문제, 즉 장치들 안에 포획되고 분리됐던 것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돌리는 문제는 그만큼 더욱더 긴급한 사안이다. 이 문제를 짚어낸 자들이 주체화 과정이나 장치들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통치될 수 없는 것’에 빛을 비추게 될 때에야 비로소 이 문제는 올바르게 제기될 것이다. 이 ‘통치될 수 없는 것’이야말로 모든 정치의 시작이기도 하며 소실점이기도 하다.”(위의 책, 48쪽)

적으로 승인하는 통치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사회는 전투를 수행하는 군사 장비나 병력 사항을 결정하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담론·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는 법적 기준·동원과 징집의 행정체계·포로와 민간인을 분류하는 수용소와 심문 절차·사상 검증과 체제 선전 전반에 포진해 전쟁을 정당화하는 유·무형의 체제 등을 조성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국민·적·피난민·부역자·난민·전쟁 포로 등과 같은 범주 속에 사람을 재배치하고 통치 가능한 주체로 만들어낸다. 생명을 담보로 한 폭력이 허용되는 예외적 순간인 전쟁 상태는 거시 담론에서 미시적 일상과 인간 내면에 이르기까지 누가 보호받을 생명이고 제거 가능한 생명인가를 결정하는 통치의 ‘장치’를 사회 내에 고착화한다.

하지만 실제 전장(戰場)은 관계사(關係史)적·관전사(貫戰史)적 맥락 속에 놓여 하나의 의미로 규정되지 못하는 많은 요소를 만들어낸다. 전쟁에 관한 개인 기억과 사회적 기념의 서사가 서로 상충하거나 영향 끼치며 무수하게 분기(分岐)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 과정은 시간과 상황이 이어지면서 장소와 세대를 넘나들며 지속·확산하고 있다. 이때 전쟁 이념의 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상황·사건 즉 전쟁 ‘장치’로 설명되지 않는 전장의 ‘통치될 수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이에 따라 전쟁의 실상은 입체화한다.

한국전쟁은 이러한 지점에서 의미화하고 공식화해야 할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진행 중 사건이다. 이 전쟁은 2차대전의 종식 이후에 빚어진 세계적 규모의 이념 대결에 의해 벌어진 내전이자 국제전이였다. 그 과정에서 2차대전에서 양산되었던 피아 식별과 역사 청산의 문제는 진영 간 세력 대결에 묻혀 사회 문제로 부상하지 못한 면이 많다. 냉전의 구도는 한반도에 그 어떤 전쟁보다도 극심한 총력전으로 이어졌고,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어야 했다. 게다가 이 전쟁은 오늘날에도 종전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한국사회 내에 이념 대결 양상을 지속시키며 사회 분열의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공식적

으로 한국전쟁을 기리는 방향성은 명백하게 국가에 대한 애국심·군인·반공사상 중심이다. 그럼에도 전장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온갖 상황들은 간단히 규정하기 힘든 다면적인 개인의 입장과 사회적 맥락, 역사 분쟁, 국가 간 이해 충돌이 산재한 채 복잡한 의미의 결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통치 불가능한 것’들을 내장한 주체들이 시대 상황의 변화 속에서 당시의 강력한 통치 체제를 비껴나는 기억과 기록 등을 제시함으로써 공식 서사만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한국전쟁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양지화한다.

전쟁경험에 대한 개인의 기록인 전쟁 수기는 이 지점에서 주의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전쟁을 결의하고 수행하는 국가의 기초는 명확하며, 이에 부합하는 전쟁 수기는 국가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타협 불가의 피아 식별 서사를 구체적 경험에 기대어 실증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와 같은 전쟁 수기는 반공정신을 강조하는 일종의 ‘맹세’의 언어로서 ‘생명체’를 ‘장치’에 부합하는 존재로 정체화하는 데 일조한다.³⁾ 실제로 한국전쟁 수행 과정에서부터 군관 주도로 출간된 전쟁 수기, 예를 들어 『고난의 90일』(유진오 외, 수도문화사, 1950), 『적화삼삭구인집』(오제도 외, 국제보도연맹, 1951), 『자유를 위하여』(오제도 편, 문예서림, 1951), 『전몰해병의 수기』(김광식·김중희 편, 중앙문화사, 1952) 등은 전문 작가는 물론 군인, 민간인 등이 외치는 반공 이데올로기, 전쟁 승리, 애국심으로 채워져 있다.⁴⁾ 이 글들은 한국전쟁의 통치 ‘장치’를 자연스럽게

3) 아감벤은 ‘맹세’가 말과 사물과 행위를 윤리적 정치적 차원에서 하나로 묶는다고 본다.(조르조 아감벤, 정문영 옮김, 『언어의 성사: 맹세의 고고학』, 새물결, 2012, 142-143쪽) 이런 측면에서 ‘맹세’는 언어를 특정 의미에 묶어 통치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장치’일 수 있다.

4) 유임하,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공포」, 『현대소설연구』제25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정체성의 우화-반공 증언수기집과 냉전의 기억 만들기」, 『겨레어문학』 39, 겨레어문학회, 2007; 서동수, 「송고의 수사학과 환멸의 기억」, 『우리말글』제 38집, 우리말글학회 2006; 신형기, 「6.25와 이야기 경험」, 『상허학보』31, 상허학회, 2011; 이행선, 「한국전쟁, 전쟁 수기와 전사의 정치」, 『상허학보』46, 상허학

기정사실화하는 주체를 생산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수기는 구체적 현실을 다루는 만큼 글 내용 전체가 이와 같은 통치 체제로서의 ‘장치’에 부합하도록 통제되기는 힘들다. 게다가 전장의 현실은 앞서 언급했듯 이념과 차이나는 개별적 상황이 산재해 있다. 즉 글쓴이 개인의 경험적 사회적 인식적 면모를 담은 현장의 이야기는 통치 논리로부터 벗어나는 창조성을 갖는 것이다.⁵⁾

특히 외국인이 한국전쟁에 참여하거나 연루되어 겪은 일들을 글로 남긴 경우에는 이러한 측면이 강화된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이념이나 의식의 측면에서 각자가 소속된 자국에서 상정하는 전쟁 ‘장치’에 구속받지, 한반도의 전쟁 ‘장치’에 직접 구속받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차이나는 입장은 전장이 자국이 아닌 한반도라는 물리적 사실에서 또 한번 굴절된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결과적으로 한국인과는 다른 맥락의 전쟁 ‘장치’ 이해를 토대로 전쟁을 수행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면모는 그들이 한국인들의 시선에서 포착되지 못하거나 포착되었어도 발설해서는 안되는 전장의 면모를 상대적으로 자유

회, 2016등에서 반공텍스트로서의 전쟁 수기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 5) 아감벤이 말하는 맹세는 생명과 언어, 행위와 말을 구별하면서도 서로 맞물리게 하고, 말과 사물 및 행위를 윤리적·정치적으로 결속하려는 언어행위이다. 여기서 아감벤은 이러한 성사적 결합을 비판적으로 문제 삼으며, 맹세·저주·법의 근원적 연관을 끊을 때 말과 법을 다르게 사용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아감벤, 앞의 책, 2012 참조) 이를 그의 장치론 및 ‘통치되지 않는 것’의 문제와 연결하면, 언어와 생명을 완전히 일치시키려는 장치적 결속을 비활성화하는 데서 통치적 목적에 환원되지 않는 언어 사용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전쟁을 기록하는 다양한 글쓰기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쟁 ‘장치’에 부합하는 개인들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수행되면서 동시에 이 ‘장치’의 바깥에서 ‘장치’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통치되지 않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오카 마리는 기본적으로 글쓰기가 글을 쓰는 개인 자신의 물리적 사회적 인식적 위치에서 이해한 만큼의 세상을 구현하기에 추상적 개념 측면에서나 집단 규모에서 파악하는 현실과 달리 구체적 현실에서 발로하는 창조적 힘을 갖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오카 마리, 김병구 옮김, 『기억, 서사』, 교유서가, 2024, 2장 참조)

로운 입장에서 표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외국인의 한국전쟁 참전 수기가 한국에 번역·소개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성이나, 그 작품들이 아직도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 연동하고 있다. 외국인의 한국전쟁 수기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한국사회의 이념 대결 구도가 순화되어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정착되는 시기인 200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연구 성과들은 국가 권력 주도로 만들어진 국내 전쟁 수기의 대항 담론을 품고 있는 작품으로 몇몇 번역 작품을 언급⁶⁾하는 면이 강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체 현황을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자유진영 외국인의 한국전쟁 수기가 국내에 번역·발간되는 상황을 조망하고, 전쟁 ‘장치’의 이념적 명분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 것’이 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장 체험의 구체성이 발신하는 한국전쟁의 의미를 고찰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6) 외국인 참전자들의 한국전쟁 수기 관련 연구는 아직 깊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형기, 「6.25와 이야기 경험-전쟁 수기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31, 상허학회, 2011; 권채린, 「한국 전쟁기 외국인 참전 수기 연구」, 『어문론총』68,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홍순애, 「외국인 종군기자 수기에 나타난 집단기억의 이데올로기-한국전쟁 참전 수기를 중심으로」(『국제어문』75, 국제어문학회, 2017; 「한국전쟁기 중국군 포로 수기에 나타난 (탈)냉전 아시아의 재편과 ‘협상된 망각’의 복원」, 『국제어문』84, 국제어문학회, 2020; 「냉전의 기억, 한국전쟁기 북한 포로수용소 외국인 포로 수기-모리스 썬틀우의 『북한포로수용소』 수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88,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2. 외국인의 한국전쟁 수기 발간 현황과 의미

한국전쟁 발발 이후부터 휴전 직후 시기인 1950년대에 국내 소개된 외국인의 한국전쟁 참전 수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필자, 제목 및 서지사향	내용 유형
럿셀·부라인즈, 김광섭 옮김, 『韓國戰線-美國記者의 從軍手記』, 수도문화사, 1951	종군기자 취재 수기
마그릿트 히긴스, 윤영춘 옮김, 『韓國은 世界의 잠을 깨웠다-韓國從軍記』, 삼협문화사, 1951	종군기자 취재 수기
모리스 썬틀우, 강영수 옮김, 『北韓捕虜收容所: 모리스 썬틀우 手記』, 동아문화사, 1953	종군기자 포로 수기
마그릿트·히긴스, 손기영 옮김, 『젊은 女記者의 手記』, 합동통신사, 1956	종군기자 취재 수기
셀레스뎡 꼬요스, 조안나·이혜자 옮김, 『나의 北韓蒲盧記: 죽음의 행진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분도, 1983	종교인 포로 수기
부르-스 자고브스, 박혜만 옮김, 『韓國戰線의 英雄들』, 자유신문사, 1955	군인 참전 수기
서울 성모영보갈멜수도원, 『갈멜修女들의 北韓拉致記 : 귀양의 노래』, 경향잡지사, 1954	종교인 포로 수기

이 수기들은 UN군 군인이나 종군기자들이 겪은 참전 상황에 대해 기록한 글이거나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고통당한 민간인의 포로 수기이다. 이 작품들은 전쟁 중 혹은 전쟁 직후에 필자 본인들이 직접 겪은 전장의 경험을 기록한 수기들인 만큼 기본적으로 북한군이나 중공군 등 적군에 대한 명확한 적대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종군기자 수기의 경우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자유 세계 구원의 중요한 명분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군인들의 참전 수기는 용맹하게 싸운 자들의 이야기가 주로 제시되고 있다. 포로 수기의 경우에는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당한 종교인·외교관·민간인·기자 등의 경험을 담고 있기에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전쟁 ‘장치’에 충분히 부합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전시 및 휴전 직후의 이념적 긴장도가 높았

던 한국사회에 이 수기들이 소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글에는 필자들이 속한 국가 기조를 기반으로 한 한국전쟁에 대한 시각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인 마거릿 히긴스(마-구릿드 히긴스)의 수기 『韓國은 世界의 잠을 깨웠다-韓國從軍記』에는 자국인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기에 미국에 이익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여 한국전쟁을 미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존재한다.⁷⁾ 또한 당시 미국에서 온 군인들이 전쟁에 대한 이해도가 진지하지 않음에 대해 언급해 위기 상황에 대한 외국 군인과 한국 군인 간의 명백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⁸⁾ 종교인 중심으로 많이 발표된 포로 수기에는 북한군이나 중공군에 대한 비판이 많이 담겨 있지만, 그뿐 아니라 북한 인민군이 가진 인간적인 면모 즉 포로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거나 음식을 나눠주는 등의 행위를 한 부분 역시 제시해주고 있다. 이는 북한 측만을 적대시하기보다 전쟁 상황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폭력 사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비단 북한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겠냐는 균형감 있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한다.⁹⁾

이후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출간된 외국인 참전 수기가 거의 없고, 맥아더의 회고록이 반복해서 번역 소개된 것에 그친다.¹⁰⁾ 맥아더

7) 미국의 세계적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에서 나오는 책임감과 반공주의에 철저한 히긴스의 입장은 수기 전반의 내용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이 미국의 안보 상태의 위기를 알려준다면 “약점을 뒤늦게 우리의 해변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한반도에서 발견한 것은 오히려 잘된 일” (마-구릿드 히긴스, 윤영준 옮김, 『韓國은 世界의 잠을 깨웠다-韓國從軍記』, 삼협문화사, 1951, 2쪽)이라고 말한다.

8) 위의 책, 7-9쪽.

9) 이러한 내용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신부와 수녀들의 수기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번역 소개되고 있는 수기 및 증언록 참조.

10) 더글라스 맥아더, 이기석 옮김, 『맥아더 회상록』, 신태양사, 1964/ 더글라스 맥아더, 구범모 옮김, 『세계의 대회고록 전집3-맥아더』, 한림출판사, 1971/더글라스 맥아더, 하혁 옮김, 『맥아더 회고록-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갈 뿐이다』, 광

는 한국전쟁 수행의 리더이자 영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정부의 전쟁 기조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당시의 한국에는 고통스러웠던 전쟁 체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에 공산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적대적식이 매우 강했고, 통치 권력의 입장에서 이의식이 사회 응집력의 근거가 되던 시기였다. 맥아더의 회고록은 이런 점에서 당시 한국사회의 환영을 받을 만한 작품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맥아더의 작품 이외에 다른 전쟁 수기가 번역되지 않은 사정은 반공주의와 이념대결에 조금이라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독물(讀物) 등에 대한 검열이 매우 엄격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도 보인다.¹¹⁾ 시기의 성격이 이러하다 보니 이념적으로 한국보다 자유로운 외국인의 다층적 시각이 조금이라도 담긴 전쟁 수기가 사회 내에 통용될 여지는 막혀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 전반기 한국 상황도 이와 비슷했기에, 이 시기에 외국인 전쟁 수기는 그다지 번역 소개되지 않았다. 마크 크라크의 참전 수기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김형섭 옮김, 국제문화출판공사, 1981)와 선교사 멜 으제니의 포로 수기 『한 수녀가 겪은 3년간의 북한 포로기』(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출판부 옮김, 가톨릭출판사, 1985)가 전부이다.

문민정부가 본격적으로 자리잡은 1990년대가 된 이후 번역된 외국인 전쟁 수기는 네 편이다.

희문화사, 1974. 이후로 80년대와 90년대에도 맥아더 회고록은 계속 번역된다. 김남혁, 「번역과 다시 쓰기로 만들어진 더글라스 맥아더의 영웅상-맥아더의 『대 회고록』과 그를 소재로 한 위인전들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7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 참조.

11) 이봉범, 「1960년대 검열체제와 민간검열기구」, 『대동문화연구』75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유신체제와 검열, 검열체제 재편성의 동력과 민간자율기구의 존재방식」, 『한국학연구』6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참조.

필자, 제목 및 서지사항	내용 유형
홍학지, 표인표 옮김, 『중국이 본 한국전쟁』, 표인표 옮김, 고려원, 1992	군인 참전 수기
레이먼드 A. 레인, 박준영 옮김, 『기억의 돋보기-패트릭 번 주교의 생애』, 성바오로출판사, 1994	종교인 증언 재구성 회고록
윌리엄 F. 딘(윌리엄 L. 위든 정리), 김희덕 옮김, 『딘 장군의 수기-주검처럼 살았던 각고의 세월 3년』, 창우사, 1995	군인 포로 수기
성 베네딕도회 선교사 증언, 박영구 편집·옮김, 『북한에서의 시련—죽음의 수용소에서 돌아온 독일인 선교사들의 육성 증언』, 분도출판사, 1997	종교인 포로 수기

먼저 『기억의 돋보기-패트릭 번 주교의 생애』와 『북한에서의 시련—죽음의 수용소에서 돌아온 독일인 선교사들의 육성 증언』은 종교인의 수기다. 이들의 포로 수기는 1950년대부터 한국사회에 번역 소개되었던 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전쟁 수기다. 종교인을 탄압하는 인민군의 이미지는 이념전의 연장선이라는 관점에서, 피아 식별의 편리함 측면에서도 활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속의 통치 논리를 초월한 인류애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종교인의 목소리는 앞서 50년대 종교인들의 포로 수기 번역 양상 소개 부분에서 잠시 언급했듯 자칫 이념의 경계선을 넘기 쉬웠다. 선교사들의 수기가 1960~1980년대에 거의 번역되지 않은 것은 이런 측면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민정부의 관점이 정착된 1990년대가 되어 이념의 경직성이 완화되면서 이러한 종교인의 전쟁 기록이 다시 소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이 본 한국전쟁』은 한국전쟁의 적국인 중국의 인민지원군 부사령관 홍학지가 쓴 참전 수기다.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 기록과 개인 기록 사이에 놓여있는 이 회고록은, 중국인의 관점에서 한국전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1980년대까지의 한국사회가 표방했던 극단적 이념 대립 상황에서는 소개되기 힘든 수기였다. 이 책이 번역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자유화 흐름이 가시화되는 속에서 가능했다고 하겠다.

또한 이듬해 발표된 구술 회고록 『딘 장군의 수기-주검처럼 살았던 각고의 세월 3년』은 기존의 외국 군인의 수기와 달리 필자 자신의 위상을 강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독자적 면모를 갖는다. 필자인 딘 장군은 북한군에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 온갖 고생을 했던 사정이나 자유진영의 대표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켜가는 모습 등을 서술할 때 자신의 영웅적 모습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상당해 부대로부터 고립되어 해매는 모습이 강조되고, 자신이 했던 군사작전 행위에 대해 반성하며 후회하는 마음이 집중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처럼 1990년대에 소개된 전쟁 수기들이 갖는 내용상 차이점은 한국사회 기조의 변화와 연동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외국인의 한국전쟁 수기가 번역되는 양이 대폭 확대되고 글의 종류도 다변화한다. 구체적 작품은 아래와 같다.

필자, 제목 및 서지사향	내용 유형
딘 E. 헤스, 박종섭 엮음, 이동은 옮김, 『배틀 힘』, 감자, 2000	군인 참전 수기
조선희(필립 J. 크로스비), 허종열 옮김, 『기나긴 겨울: 한 선교 사제의 포로 수기』, 카톨릭출판사, 2003	종교인 포로 수기
안소니 파라-호커리, 김영일 옮김, 『한국인만 몰랐던 파란 아리랑』, 한국언론문화협회, 2003	군인 포로 수기
앤서니 V. 비벨 외, 김남형 편역, 『한국전쟁, 미군 병사들의 기록』, 백암, 2008	군인 참전 수기
러셀 로이드 블레이즈델, 충현원을사랑하는사람들 옮김, 『전란과 아이들: 그 일천 명의 아버지-블레이즈델 군목의 회고록』, 세종출판사, 2008	군목 수기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엮음, 『동토에서 하늘까지』, 바오로뜨락, 2009	종교인 포로 수기
앤드류 새먼, 박수현 옮김, 『마지막 한발』, 시대정신, 2009	증언 재구성 취재 수기

마거리트 히긴스, 이현표 옮김, 『자유를 위한 희생』, 코러스, 2009(『韓國은 世界의 잠을 깨웠다-韓國從軍記』 재출간)	종군기자 취재 수기
장쩌스, 손준식 옮김,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군인 참전 수기
키몬 스크르딜스, 송인엽 옮김, 『강뉴: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 오늘의책, 2010	종군기자 취재 수기
딘 E. 헤스, 이동은 옮김, 『신념의 조인』, 플래닛미디어, 2010(앞의 『배틀 힘』 재출간)	군인 참전 수기
조지 E. 스트레이트마이어, 윌리엄 T. 이블러드 역음, 문관현 외 옮김, 『한국전쟁 일기: 극동공군 사령관 스트레이트마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플래닛미디어, 2011	군인 참전 수기
러셀 블레이즈델, 충현원을사랑하는사람들 옮김, 『1,000명의 아버지: 블레이즈델 군목 회고록』 충현원, 2011(앞의 『전란과 아이들』 수정 재출간)	군목 수기
세르주 브롱베르제 역음, 정진국 옮김, 『한국전쟁통신: 네 명의 프랑스 종군기자가 본 6.25전쟁』, 눈빛출판사, 2012	종군기자 취재 수기
마리 마들렌, 서울가르멜여자수도원 편역, 『귀향의 애가: 가르멜 수녀들의 북한 피랍기』, 기쁜소식, 2012	종교인 포로 수기
에드워드 L. 로우니, 장수영 옮김, 『운명의 1도: 에드워드 로우니 장군의 한국전쟁 회고록』, 후아이엠, 2014	군인 참전 수기
드루리 우드 외, 이병준 외 옮김, 『그들은 잊지 않았다』, 도서출판 물망초, 2014	군인 참전 수기 및 후세대 회고
알리 테니즐리, 이선미 옮김, 『터키인이 본 6.25전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4	전쟁사 및 후세대 회고
앤드루 새먼, 이동훈 옮김, 『그을린 대지와 검은 눈』, 책미래, 2015	증언 재구성 취재 수기
덴질 바슨, 길재섭 옮김, 『끝나지 않은 전쟁: 한국전쟁 참전 미군 병사의 일기』, 다밋, 2016	군인 참전 수기
필립 크로스비, 『기나긴 겨울』, 가톨릭출판사, 2016(앞의 『기나긴 겨울』 재출간)	종교인 포로 수기
목타르 루비스, 전태현 옮김, 『인도네시아인의 눈에 비친 6.25전쟁-목타르 루비스의 한국종군기』, 어문학사, 2017	종군기자 취재 수기
T. R. 페렌바크, 최필영·윤상용 옮김, 『이런 전쟁』, 플래닛미디어, 2019	군인 참전 수기

케네스 켈드, 정광제·김용필 옮김, 『후크고지의 영웅들』, 타임라인, 2021	군인 참전 수기
장썸스, 손준식·이사사 옮김, 『나의 한국전쟁: 한 중국인민지원군 전쟁포로의 60년 회고』, 소명출판, 2022. (앞의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확대 번역)	군인 참전 수기
매슈 B. 리지웨이, 박권영 옮김, 『리지웨이의 한국전쟁』, 플래닛미디어, 2023	군인 참전 수기
마거릿 히긴스, 이현표 옮김, 『한국에 가혹했던 전쟁과 휴전』, 코러스, 2023(앞의 『자유를 위한 희생』 확장판)	종군기자 취재 수기
다비드 란뷔, 동두천시 문화예술과 기획, 글나무주식회사 옮김, 『한국전쟁 참전 노르웨이 병사 다비드 란뷔의 일기』, 동두천시, 2025	군인 참전 수기
비트가르 돈도르퍼·빌리브로르트 드라이버 엮음, 박영구 옮김, 『북한에서의 시련-죽음의 수용소에서 돌아온 독일 선교사들의 육성 증언』, 분도출판사, 2026(앞의 『북한에서의 시련-죽음의 수용소에서 돌아온 독일인 선교사들의 육성 증언』 재출간)	종교인 포로 수기

자신의 경험을 직접 쓴 수기 형태는 물론이고 전문 르포 작가가 취재를 통해 참전자들의 구술 자료를 모으고 이를 편집해 일종의 목소리소설¹²⁾로 구성한 글들도 출간되고 있다. 선대의 참전 기억과 자국의 전쟁사를 결합한 책도 발간되었다. 대상 국가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참전국 사람들의 수기가 주로 소개되었다면, 이때부터 터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푸에르토리코, 호주,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제시하는 한국전쟁의 면모를 다룬다. 각 작품에서 제시하는 전쟁의 기억들도 전쟁 ‘장치’에 부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뒤섞여 있으며, 현장으로서의 전쟁

12) 목소리 소설은 문학과 저널리즘의 경계에 있는 글쓰기로, 실제 사람들의 증언·인터뷰를 통해 복수의 경험을 편집·배열하여 독자로 하여금 상황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윤영순, 「문학과 다큐멘터리-알렉시예비치의 목소리 소설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53, 한국러시아문학회, 2016 참조.

과 기억으로서의 전장이 중층적인 의미를 만들어낸다. 다분히 개인적인 경험과 감상을 담은 기록들이 본격적으로 번역·간행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에 발생한 변화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2000년대 이후 소개된 종군기자 수기 내용을 들 수 있다. 그리스 종군기자 키몬 스코르딜스가 에티오피아 강뉴부대를 취재하고 1954년에 펴낸 기록인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 강뉴』에서 특기할 점은 필자가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미군 장교들에 의해 그들의 용맹함을 칭송받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 군인들은 에티오피아를 대표하는 소수 정예부대로서 미국과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고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여야 한다는 명분 아래 한국전쟁에 참전했음을 늘 상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한국전쟁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프랑스의 종군기자 네 명의 기록을 엮은 1951년작 수기를 번역한 『한국전쟁통신』의 경우에는 기자들이 전장이 아닌 한국의 자연경관이나 민간인들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참전의 명분을 아는 군인들과 그렇지 못한 군인들을 병렬적으로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필자들은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공식 전쟁사가 담지 못하는 전쟁의 실상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종군기자 목타르 루비스가 1951년에 발간한 취재 수기가 『인도네시아인의 눈에 비친 6.25전쟁-목타르 루비스의 한국종군기』라는 제목으로 2017년에 한국에 소개되는데, 여기에서 필자는 한국전쟁의 주체가 미국과 소련임을 강조하며 국제전으로서의 한국전쟁의 위상과 세계정세를 조망한다. 그리고 남북한 양측의 사회 체제 모두 독재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함을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희생양은 민간인임을 강조한다.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타국의 기자가 세계사적 시각에서 파악하는 이러한 판단은 ‘장치’의 내부에서는 볼 수 없는, 혹은 보아서는 안되는 메타적 시선이다. 이처럼 한국전쟁에는 참전국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의미망이 산란

(散亂)해 있었음을 이 수기들은 보여준다. 다양한 방식에서 확산하는 의미를 담은 전쟁 수기가 1990년대부터 서서히 소개되는 이와 같은 양상은 전쟁 ‘장치’를 회의(懷疑)하고 전쟁 자체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 의식 변화의 결과다.

1990년대 이후 번역 소개되는 한국전쟁 수기에서 자주 드러나는 전쟁 ‘장치’ 외부의 요소들은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을 통과할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는 한국전쟁의 의미가 아직도 산재해 있음을 지시한다. 아감벤은 ‘장치’의 모습으로 현실에 산재해 있는 통치 논리 속에 안주하지 않고, ‘통치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장치’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대성’이라 부른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시대 상황과 “거리를 두면서도 들러붙음으로써” “시대와 맺는 독특한 관계”¹³⁾이다. 즉 ‘동시대인’은 시대에 무리없이 어울리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의 어둠을 자각하고, 체험된 것에서 체험되지 않은 것을 상정할 수 있는 역동적 의식을 가진 자들이다.¹⁴⁾ 때문에 ‘동시대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시대의 흐름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용기를 갖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외국인들이 남긴 전쟁 수기에는 한국사회에서 각 시기별 정치적 이념적 한계 속에서 제한된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한국전쟁의 면모를 계속해서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많은 부분 담겨있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한국사회는 한국전쟁에 대해 ‘동시대적’ 감각으로 의미를 재구성해나갈 수 있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과장되거나 축소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가치와 입장의 불균질성을 감당할 수 있는 소통 방식을 정립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전쟁 수기에서 발견되는 ‘통치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을 포착하고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3)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72쪽.

14) 위의 책, 85쪽.

3. 피아 식별의 붕괴와 전쟁 ‘장치’의 오작동

외국인의 전쟁 수기에서 보이는 ‘통치될 수 없는 것’은 외국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겪는 사항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외국 군인들이 경험하는 전장에서의 특징을 살펴보자. 전쟁을 지탱하는 ‘장치’의 기본은 명확한 피아 식별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전투에 임하는 자들은 국가에서 공인한 정체성을 장착하고 전장에서 행하는 온갖 폭력적·비인간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이 부분이 흔들렸을 때 전쟁의 당위나 이념적 강건함은 손쉽게 무너진다. 그런데 외국인의 전쟁 수기를 살펴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의 혼란상이 자주 확인된다. 아군과 적군의 구분에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장면은, 냉전적 이념 대립 위에 설립된 한국사회의 담론 ‘장치’들을 질문과 의심의 대상으로 만든다.

『딘 장군의 수기-주검처럼 살았던 각고의 세월 3년』에서 필자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당한 채 도망자 신세가 되어 숲길과 마을 등을 헤매고 다니게 된다. 그가 며칠에 걸쳐 헤매는 영토는 아군의 영역인지 적군의 영역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전장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물리적 영토가 명확하게 본진과 적진으로 나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필자와 같이 전장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아군과 적군이 자기 영역으로 통제하지 못한 지대, 즉 피아 식별의 이분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더 넓고 깊은 영토에 당도하게 되고, 그곳에 있는 온갖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뒤엉킨다.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이곳 저곳에서 몸을 숨기는 필자는 자신을 도와주는 한국인이 아군의 편인지 적군의 편인지도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피아 식별이라는 전쟁 ‘장치’의 기본 요소가 사실은 임의적이고 표면적인 지표일 뿐임을 드러낸다.

드루리 우드는 『그들은 잊지 않았다』에서 자신의 선임상사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 선임상사는 2차대전에도 참전했던 군인이며 이번에는 한국전쟁에 임하기 위해 일본에 왔다. 그런데 부두노동자로 있는 한 일본인을 보고는 그가 2차대전 때 자신을 가두었던 포로수용소 감시병이었음을 확인하고 복수심에 불탄다. 하지만 2차대전이 끝난 지금 일본과 미국은 더 이상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은 금지된 일이다. 그렇다고 기억 속에 엄연히 살아있는 과거를 없던 일로 돌릴 수도 없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선임상사에게 지휘관이 크게 화를 내고 구금실에 가두겠다고 엄포를 놓고서야 그는 겨우 진정한다.¹⁵⁾ 전쟁과 전쟁 사이를 가로지르고 아군과 적군을 혼동하게 하는 군열의 선이 비단 이 선임상사에게만 그어졌던 것은 아닐 것이며 그것이 전장의 실상에 가깝다.

한편 드루리는 중공군의 남하로 인해 북한 지대에서 퇴로를 열어야 하는 혹독한 전투를 치르면서 부산 쪽으로 내려온 상황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목숨을 건 후퇴 작전을 통해 겨우 부산 인근에 당도한 그가 발견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아군들이 신나는 파티를 열어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파티장에 들어가려 하니 복장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다며 문지기 병사에게 제지까지 당한다. 부산에 있는 군인들은 북한과 대치하는 전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일상의 평화와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장면을 목도하고 드루리가 느끼는 “충격 이상의 놀라움”¹⁶⁾은 전시상황이라는 것이 결코 고르지 못하다는 충격적으로 불공평한 사실에 대한 허망함과 분노에 가깝다.

『그을린 대지와 검은 눈』에서는 그 시작 부분에서부터 아군과 적군의 모습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을 긴장감 넘치게 포착하고 있다. 부대가 이동을 하던 중에 영국군과 북한군 대열이 맞닥뜨린 상황이 벌어진 것

15) 드루리 우드 외, 이병준 외 옮김, 『그들은 잊지 않았다』, 도서출판 물망초, 2014, 37쪽.

16) 위의 책, 56쪽.

이다. 그런데 서로의 복장에 익숙하지 않았던 양국 군인들은 서로를 아군으로 오해한다. 즉 영국군은 북한군을 남한 국군이라 여기고, 북한군은 영국군의 군복을 소련군의 것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¹⁷⁾ 이 어이없는 상황은 아군과 적군의 구분조차 사실상 쉽지 않았던 전장, 한반도의 남북한 사람들과 해외 각국에서 파병 온 사람들이 뒤엉켜 있던 전장의 실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양 진영은 사실상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전투에 임하고 있음도 계속 제시된다.

라이트는 부하들에게 수류탄 투척거리 밖으로 물러나서, 쓰러진 북한군들에게 사격을 가하라고 명령했다. 병사들은 사격을 가해, 아직 숨이 붙어 있던 부상자들도 냉정하게 죽여 버렸다. 라이트는 간단하게 말했다.

“그놈들은 우리를 박살내려고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인 거지요.”

라이트의 행위는 전쟁 범죄일까? 라이트가 소속된 대대의 지휘관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대대 부관 슬림은 이렇게 말했다.

“그의 행위는 완벽히 옳을 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타당합니다. 라이트는 뛰어난 장교였지요. 우리는 낙동강에서 북한군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았습니다. 그놈들은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 부상병들이 울부짖게 놔둔 다음에, 우리 병사들이 부상병을 회수하러 가면 매복 공격을 벌이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을 썼습니다. 그들 역시 매우 타당한 전술적 선택을 한 것이죠.”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살인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 물론 그러한 이유들을 인정해 줄 법정은 없을 것이다.¹⁸⁾

인용문은 북한군과 대치하는 영국군이 전투에 임한 모습이다. 수류탄을 맞고 이미 쓰러진 북한군에게 영국군이 재차 사격을 가하는데, 이유

17) 앤드루 새먼, 이동훈 옮김, 『그을린 대지와 검은 눈』, 책미래, 2015, 46-48쪽.

18) 위의 책, 156-157쪽.

는 아직 죽지 않은 북한군이 다시 공격을 해오기 때문이다. 부상당한 적군에 대한 인도적 처리가 이 순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는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부상당한 영국군을 이용해서 또 다른 영국군을 죽이려는 북한군의 모습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서로가 다투어있는 것이다. 대대의 부관이 전하는 “전쟁은 참 웃기지요. 적에 대한 증오심과 경외심을 동시에 갖게 해 줍니다.”¹⁹⁾라는 말은 전쟁 ‘장치’ 속에 휩쓸린 인간이라면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공통된 상황에 처하게 됨을 보여준다. 이런 면모는 『한국전쟁통신』에서도 발견된다.

전선의 미군 화력은 북한군의 열 배였다. 지아이가 약간이라도 수상한 덩불 속의 움직임을 포착해 무전을 날리면 항공기·탱크·야포는 수십 톤의 포탄을 퍼부었다.

그러나 높이 쌓인 물자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북한군이 양측 사이에 쳐놓은 불의 장막을 뚫고 들어오지 않을까 여전히 전전긍긍했다.

“우리는 병력이 부족해.”²⁰⁾

중사가 말했다.

“광신도들이지 뭐. 저놈들이 허리춤에 찬 총만으로 싸운다는 말은 웃기는 말이지. 오늘 아침, 저항하는 참호를 공격하다가 우리 중위가 북한군 기관총사수에게 수류탄을 까넣었거든. 그런데 그 북한군이 수류탄을 후딱 다시 집어던지더라고. 그것이 딱한 우리 중위 앞에서 터져 갈 같이 찢겨져 버렸지. 우리가 여기서는 우세해도 놈들은 무기를 산속에 숨기고 사라져 버릴걸.(후략)”²¹⁾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전쟁 무기 및 물자 보급은 상당했다고 한다. 특히 2차대전 때 쓰고 남은 물자를 소비하고 새로운 무기 및 전술을 시험

19) 위의 책, 222쪽.

20) 세르주 브롱베르제 엮음, 정진국 옮김, 『한국전쟁통신: 네 명의 프랑스 중군기가 본 6.25전쟁』, 눈빛출판사, 2012, 78-79쪽.

21) 위의 책, 90쪽.

하기 위해 엄청난 무기가 보급되었던 것이다.²²⁾ 그러나 첫 번째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군은 북한군보다 열 배 많은 화력을 가지고서도 하나 부족한 것으로 상정되는 ‘병력’으로 밀고 들어오는 북한군에 의해서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아군이 자신이 처한 모습을 토대로 적군의 상황을 투사해서 상정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두 번째 인용문은 적군을 죽이기 위해 던진 아군의 수류탄이 방향만 틀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아군을 죽음에 처하게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시는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이 분명 서로 대결하고 있다지만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두 진영이 전장이라는 하나의 영역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는 공동 구성원이기도 한 역설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생명을 걸고 서로를 죽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그들이 있는 셈이다. 적들의 모습에 아군이 있고, 이쪽 진영의 모습이 곧 저쪽 진영의 모습인 것이다.

이처럼 아군과 적군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장면은 ‘오인사격’의 순간에서도 포착된다. 많은 전쟁 수기에서 아군이 아군을 적으로 오인해 사격을 가하거나 포탄을 투하하는 경우가 형상화되고 있다. 미군이 표적을 잘못 잡아 네이팜탄을 영국군에 투하해 상당수의 아군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면은 매우 비극적이다.²³⁾ 어두운 밤 중국군과의 근접전에서 아군에게 사격을 가하는 아군도 다수 등장한다. 이런 일은 실수로라도 발생한다. 무기 자체는 자비가 없고 대상을 가리지도 않는다. 무기의 표적이 되면 죽는 것이다. 더 문제적인 상황은 텐질 밧슨의 수기 『끝나지 않은 전쟁: 한국전쟁 참전 미군 병사의 일기』에 제시되어 있듯 전쟁

22) 김태우, 「한국전쟁 초기 미 공군의 북한지역 공중폭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국변역통역국과 북한 문서의 노획」, 『역사와 현실』 109, 한국역사연구회, 2018; 박광명, 「해방 이후~한국전쟁기 미국의 대한원조와 ECA·SEC 원조의 성격」, 『동국사학』 68,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0 등 참조.

23) 이는 미군의 근접비행공격 중 자주 발생했고, 영국군의 피해가 컸다. 그리고 부대 내에서 오발이 발생하는 경우도 수기들에서 계속 등장한다.

이 주는 공포 속에서 패닉에 빠진 군인이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총을 난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이다.²⁴⁾ 전장에서 벌어진 이러한 일들 즉 적군을 향해야 할 포탄이 나를 향하는 일을 겪은 군인들의 기록은 전쟁이 인간 전체를 향해 가하는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적진을 돌파하라는 명령을 부하들에게 내리는 상급자의 모습도 그려진다. 그것은 부하의 시각에서 기록되기도 하고²⁵⁾ 상급자 본인이 부하를 사지에 몰아넣은 기억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한다.²⁶⁾ 정당하지도 않고 목숨에 대한 존중도 없는 명령을 내리는 상급자가 적이 아닌 아군이라는 점은 더욱 치명적으로 전쟁의 실체를 폭로한다. 사람의 목숨보다 집단의 안위와 전쟁에서의 승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전쟁 ‘장치’하에서 이러한 상황은 적을 향한 폭력이면서 동시에 아군에 대한 폭력이기도 한 것이다. 그 누구의 안전도 담보하지 않는 전쟁 ‘장치’가 강조하는 전쟁 수행의 위계는 이와 같은 전장의 혼돈을 도포하고 전쟁의 지속을 지향했다. 이처럼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의 얼굴은 시시때때로 구분되지 않고 서로를 오인하며, 이 과정에서 이념이나 정의와 무관한 희생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아군과 적군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로서 존재했다. 이 산란하는 전장에서 전쟁 ‘장치’를 ‘통치되지 않는 것’으로 균열시키는 가능성은 이와 같은 피아 식별의 실패 속에 있다. 만약 이 실패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전쟁 ‘장치’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가능성 확보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을린 대지와 검은 눈』에 등장하는 한 에피소드가 눈에 띈다. 사살당한 것으로 생각된 영국군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중국군이 그를 죽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몸짓을 보인 뒤 사라지는 장면²⁷⁾이 그것이다. 이 중국군이 이러한 인류

24) 텐질 바튼, 길재섭 옮김, 『끝나지 않는 전쟁』, 다밋, 106-107쪽.

25) 앤드루 새먼, 앞의 책, 551-552쪽; 케네스 켈드, 정광제·김용필 옮김, 『후크고지의 영웅들』, 타임라인, 2021, 236쪽 등.

26) 텐질 바튼, 앞의 책, 196-197쪽.

애적 윤리적 행위를 한 이유는, 앞선 여러 수기 내용에서 확인했듯이, 어쩌면 그가 적군인 영국군의 얼굴에서 자신의 얼굴을 봤기 때문일 것이다.

4. 해방과 점령 사이, 민간인의 전장

‘장치’는 ‘통치되지 않는 것’에 의해 해체 가능성을 갖는다. 군인들의 전쟁 수기에서 확인한 피아 식별의 실패 양상은 전쟁 ‘장치’ 그 자체에 대해 질문하고 회의하며 이 ‘장치’의 부적절함을 제기했다. 수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은 비단 군인들이 싸우는 전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민간인의 영역에서도 이 전쟁 ‘장치’의 문제, 특히 피아 식별에 실패하는 면모가 민간인들의 시선에서, 혹은 민간인의 행위 속에서 계속 포착된다. 이들 민간인에게 총구를 겨누는 자는 인민군이든 유엔군이든 한국군이든 모두 이들의 안위를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에 대한 인식이 외국인의 시선에 자주 포착되고 있다.

이상한 나날들이었다. 적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도 도망쳐 숨었다.²⁷⁾

나는 평양 피란민들로 넘치는 서울을 떠났다. 난민들은 또다시 공산군이 들어올 것이라는 깊은 수심에 차 있었다. 다섯 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반복되는 세 번째 해방을 예상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다. 그 도시를 엄습하는 끔찍한 운명에 어깨를 움츠린 이 불운한 서울 사람들에게 정치적 입장 같은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두 번씩이나 겪고 난 끝에, 또다시 경찰(공안)의 숙청 물결이 패허 위에서 맹렬한 기세로 펼쳐질 것 아닌가. 김일성의 붉은 민병대이든, 이승만의

27) 앤드루 새먼, 앞의 책, 420-421쪽.

28) 위의 책, 234쪽.

경찰이든 살벌하기는 마찬가지였다.²⁹⁾

군인의 입장에서 위 내용은 북한과 남한 간 접전이 지속되던 가장 치열했던 전투 상황이다. 그러나 인용문은 민간인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위기 상황이다. 이 민간인들에게 점령자는 남측이든 북측이든 그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든 사실상 똑같다. 민간인의 목숨을 즉결처분할 수 있는 통치자의 이름이 바뀐다고 전쟁 상태가 종식되지는 않는 것이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북중해야 할 자들과, 이념적 캐치프레이즈가 바뀔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전장에 얽히게 된 민간인들에게 전쟁 ‘장치’는 선악이나 정의의 문제이기에 앞서 권력과 힘의 문제, 생존의 문제였다. 군인들은 앞에서 살펴봤듯 전장의 혼란상에 의해 피아 식별에 실패했다. 반면 민간인은 이처럼 아군과 적군을 포함한 전쟁 ‘장치’에 의해 점령지의 구성요소로 대상화됨으로써 그 생명력의 가능성이 폐기되는 격하 상태에 놓여, 사실상 의미 있는 피아 식별이 불필요한 상황에 놓인다.

목타르 루비스는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민간인들의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가 주목한 점은 점령자가 바뀌는 순간 민간인들이 처하는 상황이다. 도망치는 이전 점령자는 떠나기 직전까지 점령지 민간인들을 수탈하고 죽이는데, 이들을 남겨두면 적국에 협력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리고 새로 온 점령자는 살아남은 민간인을 또다시 수탈하고, 그들이 적국에 협력했기에 살아남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죽인다. 그러니 민간인에게 남측 북측 두 진영은 거의 똑같은 존재로 다가온다고 말한다³⁰⁾

같은 맥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은 『한국전쟁통신』에서 제시한 홍남철수 당시의 모습이다. 중공군의 개입 이후 수세에 몰리게 된 UN군은 1950년 12월 홍남에서 철수해 퇴각을 결정한다. 필자인 프랑스

29) 위의 책, 278쪽.

30) 목타르 루비스, 전태현 옮김, 『인도네시아인의 눈에 비친 6.25전쟁-목타르 루비스의 한국중군기』, 어문학사, 2017, 58-65쪽.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장면은 12월 23일 철수하는 UN군이 마지막 배 메러디스빅토리호에서 실려있던 무기도 내리고 피난민을 태워 떠나던 순간이다. 이 상황은 한국전쟁 기록 중에서 승리를 목전에 두었다가 후퇴하는 안타까운 장면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군인들을 칭송하는 예로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그곳에 함께 있었던 필자는 그런 장엄함보다는, 그 배에 타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선 피난민들이 가득한 항구의 모습을 기록한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를 가늠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이제 그곳을 떠나려던 그 사람들, 버림받았다는 감정만이 아니라 군대가 칠 수밖에 없던 장벽에 막혀 붉은 군대에 넘겨졌다는 감정을 갖게 될 사람들이 그 체제에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

이제 제1세대보다 더욱 프롤레타리아가 되고 더욱 공산화한 채, 겨울을 날 식량도 돈도 없이 파괴된 공장과 허물어진 집들 사이에서 눈발이 떨어 이 거대한 무리는 공산정권에 어떤 태도를 취할까?³¹⁾

UN군은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서 민간인들을 ‘해방’시켰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제 UN군이 철수하고 나면 이후로 이 지역은 다시 북한군에 의해 점령될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북한군에 의해 ‘해방’될 것이고 자신들을 따르라는 말을 들을 참이다. 미군의 부역자라는 이름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모색하지 못하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민간인이 품을 생각과 감정이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 필자는 고뇌한다. 자력구제하지 않으면 안되면서 동시에 자력구제할 힘이 전혀 없는 민간인들이기에, 충구를 내보이는 자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의식은 절망 혹은 냉소 뿐이다. 확실한 명분과 목

31) 세르주 브롱베르제, 앞의 책, 290쪽.

숨을 건 진지함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라 해도 이들 민간인들이 처한 상황을 명쾌하게 설명할 말은 없어 보인다. ‘정의’는 승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인지 규정하기 어렵다. 『그을린 대지 검은 눈』에서도 민간인을 보는 한 군인의 말 속에 이러한 갈등이 보인다.

“어떤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게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그 광경을 보고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니 뭐니 하는 데는 관심도 없을뿐더러, 그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된 관심사였을 뿐인데 말이지요. 이게 ‘해방’이라면 참 웃기는 해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없었으면 더 잘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지요.”³²⁾

정의 수호를 위한 전쟁, 해방을 위한 전투 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러한 방식의 전쟁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 인용문 속에는 담겨 있다. 이렇게 적군에게 방치되는 민간인들, 혹은 잠재적 부역자로 상정되는 민간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해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해방’을 위해 벌이는 전쟁의 한계, 전쟁 ‘장차’ 바깥의 통치 불가능한 실상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다.

전쟁이 발생하면 개개인은 국민으로서 태생적 국적에 상응하는 쪽으로 편입된다. 자신이 속한 국가가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국민은 더 이상 국민이 될 수 없고, 승전국의 잠재적 국민이 된다. 이처럼 전장에서 의 민간인이라는 정체는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많은 존재 가치의 가능성을 억압당한 채 전쟁의 피아 식별에 따라 정체가 결정된다. 이러한 구분법이 현실의 다양한 맥락을 통해 구성되는 개개인의 면모를 억압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셀레스뎡 꼬요스의 포로 수기 『나의 북한 포로기: 죽음의 행진에서 아버지의 집으로』에 소개되는 ‘만생’라는 12세 소년의

32) 앤드루 새먼, 앞의 책, 232-233쪽.

문제는 전장에서의 ‘민간인’ 위상이 전쟁 ‘장치’에 의해 손쉽게 재단되 어버리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만생의 어머니 ‘황 부인’은 한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의 혼혈아다. 그녀는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 아들 만생과 함께 함흥에서 살 게 되는데, 2차대전 때 소련 군인이 들어오자 서울로 탈출한다. 그녀의 남편은 미 대사관을 도와 통역관이자 기자로서 일하던 중 그녀와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고, 모자는 체포되어 포로 신세가 된다.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 황 부인은 정신 상태가 나빠져 아들 만생을 함부로 대하는 등 안정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필자 꼬요스 신부는 그런 만생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살피지만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 감시원들이 이 소년과 유대를 쌓아간다. 이유는 소년의 할아버지가 북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생 역시 자신에게 정을 주지 않는 어머니나 헐벗고 고통에 빠져있는 포로들보다 포로를 관리하며 권력을 누리고 자신을 귀여워해주는 북한 감시원들에게 심정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1953년 포로들이 풀려나게 되었을 때 북한 감시원들이 어머니는 다시 프랑스로 간다 하더라도 아들 만생이는 북한에 남아야 한다며 보내지 않으려 하는데, 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꼬요스 신부 등이 노력한 결과로 만생은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소년이 마음 속에서 느낄 자신의 정체성이나 소속감의 향방은, 그리고 그가 전쟁포로로 겪은 일에 대한 평가는 과연 어떠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꼬요스 신부의 입장이다.³³⁾

혼혈 2세대라 할 수 있는 이 소년의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은 단순하지 않다. 게다가 전쟁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 앞에서 그는 민간인이자 어린이이면서도 전쟁포로라는 극한의 상황을 경험했다. 게다가 가족적

33) 셀레스뎡 꼬요스, 조안나·이혜자 옮김, 『나의 北韓蒲盧記: 죽음의 행진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분도, 1983, 151쪽.

연대의식이나 소속감이 약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을 포로로 만든 사람들의 무리와 유대감을 갖게 되는 상황도 문제적이다. 이 혼종적 정체성 상황을 겪는 사태에 대해 전쟁 ‘장치’는 어떤 명쾌한 답을 줄 수 있을까. 존재 자체로 이미 통치될 수 없는 존재인 이 소년의 전쟁 경험은 전쟁을 상징하는 피아 식별의 명쾌함을 와해시키는 ‘통치되지 않는 것’의 실체적 증거 그 자체다.

5. 수행되지 않는 전쟁 – ‘동시대적’ 증언과 지속되는 ‘미결성’

한국전쟁을 기록한 외국인들의 수기는 많은 경우 한국전쟁 발발 초창기부터 줄곧 전쟁 ‘장치’에 ‘통치되지 않는 것’들을 내국인의 수기보다 빨리,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런 만큼 ‘장치’로서의 전쟁 담론이 이들의 수기 속에서 회의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들 수기 곳곳에 제시된 구체적 전장 속 군인 및 민간인의 경험에서 전쟁 ‘장치’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피아 식별에 실패하고 있었다. ‘장치’가 촘촘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상정된 전장이 사실상 많은 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장치’의 힘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이 수기들은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인 국제 사건의 의미가 결코 통치자의 이념에 따라 의미적 완결성을 가질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여전히 발간되고 있는 다양한 한국전쟁 수기가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번역·소개되고 있는 현상은 한국전쟁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여전히 의미의 분기 와중에 있는 ‘미결성’의 현장임을 드러낸다.

도미야마 이치로의 ‘미결성(openness)’ 개념은 ‘장치’가 ‘통치되지 않는 것’에 의해 균열되고 ‘동시대적’ 각성을 한 사람들에게 의해 비작동하

는 상황이 어떤 현실로 존재할 수 있는지 그려볼 수 있게 한다. 아감벤은 ‘동시대인’이 “시간을 나누고 가필함으로써 시간을 변형할 수 있고” “다른 시간과 관련시”켜 “역사를 미증유의 방식으로 읽을 수 있”³⁴⁾도록 한다고 본다. 이렇게 ‘동시대성’을 각성했을 때 새롭게 읽어내는 역사의식이 구체적 현실 속에서 어떤 지향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미결성’은 좋은 참조점이 된다. ‘미결성’은 새로운 현실 변화나 질서 구축 이후 사후적으로 그 가능성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꿈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다. 때문에 ‘미결성’은 사건의 결과나 의미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나 이념적 판단으로 종결되지 않고, 상충하는 기억과 체험 속에서 계속 유예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³⁵⁾ 사회 체제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폭력과 상처를 봉합하고 은폐함으로써 질서 잡힌 현실을 세계의 기본값으로 상정한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특정 영역과 그것에 관한 기억은 억압된다. ‘미결성’은 이러한 억압된 요소들에 의해 현실 논리가 완결될 수 없음을 상정한다. 그리고 이 ‘미결성’적 요소들이 부상하는 순간 사회 구성요소들의 관계나 사회 내 결정들은 다시 열리게 되고 다시금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현실화한다.

본고에서 살펴보고 있는 전쟁 수기에서 필자나 수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각종 상황 속에 맞닥뜨려 만들어내는 다양한 판단과 행위들이 함축하는 가치 판단의 의식은 독자들에게 ‘장치’에 귀속된 현실에 ‘미결성’의 장을 계속해서 펼쳐 보여준다.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의 통치 논리와 직결되지 않는 외국인이 기록한 수기가 가질 수 있는 급진성은 이러한 관점에서 명시될 수 있다. 체제에 맞게 정제되지 않는 다양한 시선이나 ‘통치될 수 없는’ 구체적 장으로서의 삶의 맥락이 국가 체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수기에 포착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34)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87쪽.

35) 도미야마 이치로, 박수경 옮김,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오키나와 전후사(戰後史)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해안, 2010 참조.

있는 것이다.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공식 기록의 한계를 벗어나, 개별적 구체성을 담은 이 수기들은 한국전쟁의 현장에 선 사람들이 어떤 의식 속에서 전쟁 ‘장치’에 휩쓸리고 있었는지 가늠하게 한다. 또한 그럼에도 그 장치의 너머에서 그것을 정지시키고 또 다른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요소들 역시 확인하게 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념적 선명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끊임없이 포로수용소를 탈출한 영국 군인 안소니 파라-호커리의 『한국인만 몰랐던 파란 아리랑』을 보면, 필자가 적의 공격은 심해지는데 아군이 쓸 포탄은 줄어들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딱정벌레 한 마리가 참호 벽을 기어오르는 모습을 보는 장면이 나온다.³⁶⁾ 생명이 위태로운 급박한 상황에서 이 벌레 한 마리의 움직임을 봤던 순간을 잊지 않고 수기 속에 기록으로 남긴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수기에서 그 내용은 포화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싸우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고작 3분 정도의 시간이었음을 회상하는 과정에 배치되어 있다.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은 언제든지 스러져갈 수 있는 미물임을 상기하면서 자신도 이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가 외부 상황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모습처럼 임무에 충실할 것임을 다짐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서술은 전장의 가치와 미물의 가치를 동일시함으로써 해서 전쟁에 임하는 숭고한 군인 정신의 가치라는 것이 인간에 한정된 것일 뿐, 더 크고 넓은 자연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를 함께 발신하는 것으로 읽힌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매몰되어 있다가 그 현실을 메타적 의식에서 확인하는 각성에 이를 때 주체는 그 상황에 잠식된 의식에서 놓여난다. 이것은 그가 전쟁 ‘장치’로부터 이탈한 의미를 포착한 순간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은 여러 수기에서 필자들이 전쟁이 한창인 상황임에도 불

36) 안소니 파라-호커리, 김영일 옮김, 『한국인만 몰랐던 파란 아리랑』, 한국언론인협회, 2003, 96쪽.

구하고 전쟁터로서의 한반도가 아니라 자연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운 한반도, 공기가 너무나 깨끗한 한반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반복되는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관련해 셀레스뎡 꼬요스의 수기를 보면 포로 신세를 면하고 본국 프랑스로 떠나는 순간에 한국 땅이 자신에게 왜 한국을 떠나려 하느냐 말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을 마음 속 깊이 새겨두고자 한다고 기록한다.³⁷⁾ 일제강점기부터 선교를 위해 조선에 들어와 살았던 그에게 한국 땅은 매우 강한 감정과 경험으로 연결된 땅이 아닐 수 없다. 그에게 한반도는 한국전쟁의 민간인 포로로서 박해받은 땅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강산이 있는 곳, 훌륭한 인품의 조선 사람들과 교류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 기회의 땅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국 땅이 그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다는 수기 내용은 그가 너무나 긴밀하게 한국 땅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한국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이 공존하는 자기 내면의 ‘미결성’을 감각한 순간이 아닐까 한다.

이처럼 전쟁터가 전쟁터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역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의미있게 보여주는 ‘미결성’의 순간은 휴전이 선언되는 순간 전장의 모습에 대한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을 잊지 않았다』에 수록되어 있는 브라이언 패릿의 수기 「어느 영국 군인의 비망록: 1952-1953」을 보면 휴전 협정이 확정된 7월 27일 20시에 전선 앞의 군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다.

20시 2분쯤 갑자기 익숙한 박격포 소음이 들렸다. 맵소사. 휴전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인가? 그런데 골짜기가 빨강, 파랑, 하양 불꽃으로 환해졌다. 폭발물이 아닌 조명탄을 터뜨린 것이었다. 적군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휴전이였다. 어둠에 싸인 영국군 전선에 환호성이 퍼져갔다. 우리 쪽에서도 모든 구경의 박격포가 저장하고 있던 유색 연기를 발포했다. 불꽃이 작열했다. 양측 병사들은 명령

37) 셀레스뎡 꼬요스, 앞의 책, 159쪽.

을 어기고 철조망을 넘었다. 지뢰밭을 건너 중공군과 맥주와 담배를 교환했다. 20시의 적군이 20시 10분에는 친구가 된 것이었다..... 신기한 전쟁경험이었다.³⁸⁾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쟁을 묘사하던 그의 글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전쟁 중지의 순간은 확실히 목숨을 걸고 싸우던 행위가 갑작스레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아군과 적군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던 전쟁터가 이 휴전의 순간에 전혀 다른 지대로 급변해서 ‘친구’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된 것이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을 만들었던 전쟁 ‘장치’는 전쟁의 멈춤과 동시에 사라지고, 양 진영의 사람들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시민이 되고 서로 친구가 되었다. 휴전 협정이 발효되었다고 해도 서로가 총을 놓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화해의 순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결국 전쟁터라는 현실을 고정불변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생명의 공생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유예되었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미결성’의 장을 만든 것이다. 전쟁 중이었던 사람들도 군인으로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지만 이 변화의 가능성, 즉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통치되지 않는 것’이 발현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의 다양한 한국전쟁 수기는 각 필자나 구술자가 자리하고 있던 제도적 ‘장치’에 영향 입은 정체성의 위치와, 실제 현실의 목격자로서 확인한 사실 간의 불일치를 기록한다. 또한 공식 언어와 감각적 경험 사이의 불일치, 그리고 아군·적군의 구분과 구체적인 인간의 얼굴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불일치는 전쟁 ‘장치’의 균열점을 만들며 우리 사회가 한국전쟁의 장을 어떤 식으로 의미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재구성하도록 자극한다. ‘미결성’을 보장하는 이러한 방

38) 드루리 우드 외, 앞의 책, 134-135쪽.

식이 한국사회에 안착될 때 우리는 한국전쟁의 면모를 보다 명확히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가며 - ‘미결성’의 전장과 평화 담론 구상

본고에서는 국내에 번역·소개된 외국인의 한국전쟁 수기가 한국사회의 시기별 이념 지형의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왔는지를 살피고, 그 기록들이 국가 중심의 전쟁 ‘장치’에 영향 입으면서도 균열시키는 양상을 밝혔다. 1950-1980년대에는 반공주의와 이념적 이분법에 따른 피아 식별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외국인 수기가 일부 소개되는 정도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애국심과 희생정신으로 규정되지 않는 불안과 갈등에 놓인 군인, 적대국이나 약소국 군인, 이념 대립의 틀을 넘어서는 종교인, 한국전쟁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보였던 기자 등이 남긴 외국인 전쟁 수기가 적극적으로 번역 되기 시작한다. 이들 수기는 각국의 차이는 국익과 참전 명분, 민간인 상황, 불안정한 아군-적군 구별 양상, 전쟁의 부조리 등 공식 전쟁사가 포착하지 못한 복수의 시선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많은 외국인 전쟁 수기가 한국전쟁을 고정된 이념과 승패의 서사로 봉합하지 않고, 아감벤의 ‘동시대성’과 ‘통치될 수 없는 것’의 관점에서 재해석 가능한 전장을 포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서 외국인의 참전 수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한국전쟁 재해석의 여지를 내용상 군인의 경우와 민간인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군인들이 기억하고 기록한 전장의 ‘통치될 수 없는 것’은 피아 식별의 실패와 전쟁 ‘장치’의 불안정성과 오작동이었다. 전쟁은 아군과 적군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 전장은 이러한 ‘장치’로 통제되지 않았다. 복장이 혼동되고 과거의 적과 현재의 동맹이 뒤섞였으며 전선과 후방에 심각한 격차가 있었다. 또한 적군과 아군은 서로 유사한 폭

력을 행사했고, 오인사격과 무차별적 무기 작동이 발생했으며, 상급자의 부하에 대한 희생 강요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이는 전쟁의 폭력이 적뿐 아니라 아군에게도 향함을 드러냈다. 한편 외국인 전쟁 수기 속 민간인은 남한측과 북한측의 군인을 다른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생존을 위협하는 점령자로 동일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었다. 점령 주체가 바뀔 때마다 민간인은 계속해서 숙청·수탈·부역 혐의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그때마다 ‘해방’과 ‘정의’라는 전쟁 명분이 민간인의 현실에서는 쉽게 무너졌다. 이러한 부조리가 부상하는 순간들은 전쟁 ‘장치’의 불완전성과 해체 가능성을 증명했다.

결과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한국전쟁 수기는 국가와 이념이 구축한 전쟁 담론과 실제 경험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내며, 아군·적군 및 군인·민간인의 정체성이 고정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포화 속 딱정벌레를 바라본 군인의 시선, 포로 경험 이후에도 한국과의 유대감을 의식하는 선교사, 휴전 직후 적군과 맥주와 담배를 나며 서로 친구가 되는 병사들의 모습 등은 전쟁 ‘장치’가 비작동하고 다른 삶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증명한다. 전쟁터가 불변의 현실이 아니며 인간에게 공존 공생의 잠재성은 늘 열려있는 것이다. 이 기록들은 공식 언어와 구체적인 인간 경험 사이의 균열을 통해 한국전쟁이 단일한 이념이나 역사적 결론으로 봉합될 수 없음을 증언한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상충하는 기억과 체험 속에서 계속 재구성되어야 할 완결되지 않는 사건이며, 이러한 ‘미결성’을 보장할 때 은폐된 폭력과 전쟁의 실상을 드러내는 전쟁 기념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상으로 외국인의 한국전쟁 수기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일단락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룬 여러 텍스트를 통해 한국전쟁에 대한 ‘미결성’적 사유를 확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이 전쟁을 과거의 상처로만 방치하지 않고 국가와 이념의 언어를 넘어서는 현재의 물음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모색해야 할 평화 담론은 전쟁의 종결을 선언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과 동지의 경계를 해체하며 공존의 잠재성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실천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도야말로 전장을 평화의 가능성이 생성되는 장소로 전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다양한 전쟁 수기 중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재독해야 할 개별 작품들이 있다. 게다가 지금도 외국인의 한국전쟁 수기는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으며, 발굴·번역·소개되어야 할 가치를 가진 수기도 많다. 이에 외국인의 한국전쟁 수기에 대한 연구는 보다 다양한 자료 확보와 연구방법론 탐구를 통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학 작품 등의 형태로 형상화되고 있는 한국전쟁의 면모나 내국인의 전쟁 수기와 비교대조를 통해 그 성격을 규명하는 부분도 연구가 필요한 상태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며 한국전쟁의 ‘동시대성’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전쟁 개념의 대척점에 머물지 않는 심화된 평화 담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를 다음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다비드 란뷔, 동두천시 문화예술과 기획, 글나무주식회사 옮김, 『한국전쟁 참전 노르웨이 병사 다비드 란뷔의 일기』, 동두천시, 2025.
- 덴질 바슨, 길재섭 옮김, 『끝나지 않은 전쟁: 한국전쟁 참전 미군 병사의 일기』, 다밋, 2016.
- 드루리 우드 외, 이병준 외 옮김, 『그들은 잊지 않았다』, 도서출판 물망초, 2014.
- 딘 E. 헤스, 박종섭 엮음, 이동은 옮김, 『배틀 힘』, 감자, 2000.
- _____, 이동은 옮김, 『신념의 조인』, 플래닛미디어, 2010.
- 럿셀·부라인즈 편, 김광섭 옮김, 『韓國戰線-美國記者의 從軍手記』, 수도문화사, 1951.
- 러셀 블레이즈텔, 충현원을사랑하는사람들 옮김, 『전란과 아이들: 그 일천 명의 아버지-블레이즈텔 군목의 회고록』, 세종출판사, 2008.
- _____, 충현원을사랑하는사람들 옮김, 『1,000명의 아버지: 블레이즈텔 군목 회고록』 충현원, 2011.
- 레이먼드 A. 레인, 박준영 옮김, 『기억의 돋보기-패트릭 번 주교의 생애』, 성바오로출판사, 1994.
- 마-구릿드 히긴스, 윤영춘 옮김, 『韓國은 世界의 잠을 깨웠다-韓國從軍記』, 삼협문화사, 1951.
- 마거릿 히긴스, 손기영 옮김, 『젊은 女記者의 手記』, 합동통신사, 1956.
- 마거릿 히긴스, 이현표 옮김, 『자유를 위한 희생』, 코러스, 2009.
- _____, 이현표 옮김, 『한국에 가혹했던 전쟁과 휴전』, 코러스, 2023.
- 마리 마들렌, 서울가르멜여자수도원 편역, 『귀향의 애가: 가르멜 수녀들의 북한 피랍기』, 기쁜소식, 2012.

- 마크 클라크, 김형섭 옮김,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국제문화출판공사, 1981.
- 매슈 B. 리지웨이, 박권영 옮김, 『리지웨이의 한국전쟁』, 플래닛미디어, 2023.
- 멜 으제니,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출판부 옮김, 『한 수녀가 겪은 3년간의 북한 포로기』, 가톨릭출판사, 1985.
- 모리스 싰틀우, 강영수 옮김, 『北韓捕虜收容所: 모리스 싰틀우 수기』, 동아문화사, 1953.
- 목타르 루비스, 전태현 옮김, 『인도네시아인의 눈에 비친 6.25전쟁-목타르 루비스의 한국중군기』, 어문학사, 2017.
- 부르-스. 자고브스, 박혜만 옮김, 『韓國戰線의 英雄들』, 자유신문사, 1955.
- 비트가르 돈도르퍼·빌리브로르트 드라이버 엮음, 박영구 옮김, 『북한에서의 시련-죽음의 수용소에서 돌아온 독일 선교사들의 육성 증언』, 분도출판사, 2026.
-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엮음, 『동토에서 하늘까지』, 바오로뜨락, 2009.
- 서울 성모영보갈멜수도원, 『갈멜修女들의 北韓拉致記 : 귀양의 노래』, 경향잡지사, 1954.
- 성 베네딕도회 선교사 증언, 박영구 편집·옮김, 『북한에서의 시련—죽음의 수용소에서 돌아온 독일인 선교사들의 육성 증언』, 분도출판사, 1997.
- 세르주 브롱베르제 엮음, 정진국 옮김, 『한국전쟁통신: 네 명의 프랑스 중군기자가 본 6.25전쟁』, 눈빛출판사, 2012.
- 셀레스뎡 꼬요스, 조안나·이혜자 옮김, 『나의 北韓蒲盧記: 죽음의 행진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분도, 1983.
- 안소니 파라-호커리, 김영일 옮김, 『한국인만 몰랐던 파란 아리랑』, 한국언론문화협회, 2003.

- 알리 데니즐리, 이선미 옮김, 『터키인이 본 6.25전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4.
- 앤드루 새먼, 이동훈 옮김, 『그을린 대지와 검은 눈』, 책미래, 2015.
- _____, 박수현 옮김, 『마지막 한발』, 시대정신, 2009.
- 앤서니 V. 비벨 외, 김남형 편역, 『한국전쟁, 미군 병사들의 기록』, 백암, 2008.
- 에드워드 L. 로우니, 장수영 옮김, 『운명의 1도: 에드워드 로우니 장군의 한국전쟁 회고록』, 후아이엠, 2014.
- 윌리엄 F. 딘(윌리엄 L. 위든 정리), 김희덕 옮김, 『딘 장군의 수기-주검처럼 살았던 각고의 세월 3년』, 창우사, 1995.
- 장쩌스, 손준식·이사사 옮김, 『나의 한국전쟁: 한 중국인민지원군 전쟁 포로의 60년 회고』, 소명출판, 2022.
- 조선희(필립 J. 크로스비), 허종열 옮김, 『기나긴 겨울: 한 선교 사제의 포로 수기』, 가톨릭출판사, 2003.
- 조지 E. 스트레이트마이어, 윌리엄 T. 이블러드 편, 문관현 외 옮김, 『한국전쟁 일기: 극동공군 사령관 스트레이트마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플래닛미디어, 2011.
- 케네스 켈드, 정광제·김용필 옮김, 『후크고지의 영웅들』, 타임라인, 2021.
- 키몬 스큐르딜스, 송인엽 옮김, 『강뉴: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한국전쟁 참전기』, 오늘의책, 2010.
- 필립 크로스비, 『기나긴 겨울』, 가톨릭출판사, 2016.
- T. R. 페렌바크, 최필영·윤상용 옮김, 『이런 전쟁』, 플래닛미디어, 2019.

2. 단행본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해안, 2010.

- 오카 마리, 김병구 옮김, 『기억, 서사』, 교유서가, 2024.
- 조르조 아감벤, 양창렬 옮김, 『장치란 무엇인가?』, 난장, 2010.
- _____, 정문영 옮김, 『언어의 성사: 맹세의 고고학』, 새물결, 2012.

3. 논문

- 권채린, 「한국 전쟁기 외국인 참전 수기 연구」, 『어문론총』68,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109-132.
- 김남혁, 「번역과 다시 쓰기로 만들어진 더글라스 맥아더의 영웅상-맥아더의 『대화고록』과 그를 소재로 한 위인전들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7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 355-401.
- 김태우, 「한국전쟁 초기 미 공군의 북한지역 공중폭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6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359-400.
- 박광명, 「해방 이후~한국전쟁기 미국의 대한원조와 ECA·SEC 원조의 성격」, 『동국사학』68,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0, 313-356.
- 서동수, 「송고의 수사학과 환멸의 기억」, 『우리말글』제38집, 우리말글학회 2006, 275-302.
- 신형기, 「6.25와 이야기 경험-전쟁 수기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31, 상허학회, 2011, 211-252.
- 유임하,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공포」, 『현대소설연구』제25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55-75.
- _____, 「정체성의 우화-반공 증언수기집과 냉전의 기억 만들기」, 『겨레어문학』39, 겨레어문학회, 2007, 275-308.
- 윤영순, 「문학과 다큐멘터리-알렉시예비치의 목소리 소설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53, 한국러시아문학회, 2016, 93-117.
- 이봉범, 「1960년대 검열체제와 민간검열기구」, 『대동문화연구』75집, 성

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413-478.

_____, 「유신체제와 검열, 검열체제 재편성의 동력과 민간자율기구의 존재방식」, 『한국학연구』6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345-406.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국번역통역국과 북한문서의 노획」, 『역사와 현실』109, 한국역사연구회, 2018, 493-525.

이행선, 「한국전쟁, 전쟁 수기와 전시의 정치」, 『상허학보』46, 상허학회, 2016, 117-157.

홍순애, 「외국인 종군기자 수기에 나타난 집단기억의 이데올로기-한국전쟁 참전 수기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75, 국제어문학회, 2017, 365-393.

_____, 「한국전쟁기 중국군 포로수기에 나타난 (탈)냉전 아시아의 재편과 ‘협상된 망각’의 복원」, 『국제어문』84, 국제어문학회, 2020, 351-382.

_____, 「냉전의 기억, 한국전쟁기 북한 포로수용소 외국인 포로수기-모리스 썬틀우의 『북한포로수용소』 수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88,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205-231.

<Abstract>

A Study of Foreign Personal Accounts of the
Korean War: War as a Question

Lee, Hee-Won*

This study examines foreign personal accounts of the Korean War that have been translated and published in South Korea, drawing on Giorgio Agamben's concepts of the "apparatus" and the "ungovernable," in order to explore how state-centered narratives of the war have been both reproduced and disrupted over time. It first surveys the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Korean War personal accounts written by foreign war correspondents, veterans, prisoners of war, missionaries, and others, dividing them into four periods: the 1950s, the 1960s-1980s, the 1990s, and the 2000s. By situating these publications within their respective historical contexts and comparing their patterns of introduction and reception, the study demonstrates that both the range of works translated and the aspects of the war highlighted in them changed in response to ideological shifts in South Korean society.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se foreign personal accounts of the Korean war are particularly evident in their accounts of the battlefield as experienced by soldiers and by civilians. From the perspective of soldiers, the personal accounts repeatedly depict failures to distinguish friend from foe, incidents of friendly fire, similarities between enemy and allied forces, and the seemingly meaningless death of soldiers. Such experiences reveal how

*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apparatus” of war repeatedly malfunctions on the actual battlefield. In civilian accounts, meanwhile, the “liberation” proclaimed by North and South Korean forces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is shown to be inseparable from experiences of occupation, purge, and expropriation. These narratives also emphasize that civilian identities cannot be fully defined or contained by the logic of war. Foreign personal accounts thus record the Korean War from perspectives that reflect the national interests and ideological positions of the authors’ respective countries, while remaining to some extent outside the Korean apparatus of war. This relative distance enabled them to disclose individual experiences of fear, compassion, and contradiction that were often left unrecorded in Korea’s official histories of the war. The gradual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these works in South Korea further suggests that they became accessible as Korean society developed a greater capacity to accommodate such alternative and unsettling accounts of the war. These accounts thus resist closing the Korean War into a single ideological framework or a narrative of victory and defeat, instead providing an occasion to understand it as an unresolved event whose meanings must be continually reconstructed. They also open up the possibility of forms of war commemoration that move beyond state-centered remembrance by bringing to light aspects of the Korean War that have remained obscured or marginalized. In this respect, the study demonstrates the need for continued research on foreign personal accounts of the Korean War.

Key Words: Foreign Personal Accounts of War, War Memoirs, The Korean War, Apparatus, Contemporariness, Friend-enemy

외국인의 한국전쟁 수기와 전쟁이라는 물음 341

Distinction, Civilians, Openness

■ 논문접수 : 2026년 07월 26일

■ 심사완료 : 2026년 08월 09일

■ 게재확정 : 2026년 08월 21일

